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October 2025 Issue | Vol. 69

SPECIAL POINTS OF INTEREST

- 필리핀 3분기 성장률, 안정적이거나 소폭 상승할 전망
— page 1-2
- 필리핀-한국, 2년간 청정대기 공동 프로젝트 추진
— page 2-3
- 9월 물가상승률 1.7%로 상승
— page 3
- 외국 자금, 필리핀 채권 매입 확대
— page 3-4
- 무역 부진과 ‘뒤쳐진’ 경쟁력으로 필리핀 수출 전망 어두워져
— page 4-5
- 마르코스 “한 푼도 낭비되지 않을것”
— page 5-7

UPCOMING EVENT

- [Nov 24, 2025] 2025 KCCP Christmas Party
— page 7

필리핀 3분기 성장률, 안정적이거나 소폭 상승할 전망

October 06, 2025 | Louella Desiderio | The Philippine Star

마닐라 — 필리핀 경제는 물가 상승률 하락의 영향으로 3분기 성장률이 전분기와 비슷하거나 다소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경제계획개발부(DEPDev)가 밝혔다.

“전반적으로 같은 속도가 아니더라도 약간 더 나은 성장세를 보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아르세니오 발리사칸 DEPDev 장관은 《더 스타(The STAR)》와의 인터뷰에서 3분기 경제 실적 전망에 대해 말했다.

필리핀 경제는 올해 2분기에 5.5% 성장해 1분기의 5.4% 성장보다 약간 빨랐으나, 지난해 2분기의 6.5% 성장률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 평균 성장률은 5.4%를 기록하며, 정부가 설정한 연간 성장 목표치인 5.5~6.5%에 미치지 못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라고 발리사칸 장관은 말했다. 8월의 전체 물가상승률(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7월의 0.9%에서 1.5%로 상승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의 3.3%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1월부터 8월까지의 평균 인플레이션율은 1.7%로, 정부의 연간 목표 범위인 2~4%를 밑돌았다.



“Overall, I think we should see, if not at the same pace, it's slightly better,” DEPDev Secretary Arsenio Balisacan told The STAR when asked how the economy likely performed in the third quarter compared to the previous quarter.

STAR / File

발리사칸 장관은 여러 차례 태풍이 필리핀을 강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채소류 등 일부 작물을 제외하면 농업 부문의 피해는 광범위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8월의 노동시장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필리핀 통계청(PSA)에 따르면, 실업률은 6월의 3.7%에서 7월에는 5.3%로 상승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달의 4.7%보다 높은 수치다.

이로써 실업률은 2022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8월 수치는 더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라고 발리사칸 장관은 말했다.

그는 또 필리핀의 수출업체들이 8월 7일 발효된 19%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의 선적을 앞당긴 것이 수출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리핀의 수출액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55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94억 5,000만 달러보다 13% 증가했다.

발리사칸 장관은 “4분기에 더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라며, 최근 드러난 홍수 통제 사업 관련 부패 사건이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인프라 지출이 이번 스캔들로 인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Cont. page 2]

필리핀 3분기 성장률, 안정적이거나 소폭 상승할 전망

[Cont. from page 1]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잘 관리하고, 부패와 무관한 인프라 프로젝트와 프로그램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국내의 여러 도전 과제와 대외적 위험 요인을 고려할 때, 발리사칸 장관은 “올해 전체 성장률이 5.6%나 5.7% 정도만 되어도 만족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다.

필리핀 통계청 (PSA)은 오는 11월 7일에 3분기 경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10/06/2477743/philippines-growth-seen-steady-or-slightly-higher-q3](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10/06/2477743/philippines-growth-seen-steady-or-slightly-higher-q3)

필리핀-한국, 2년간 청정대기 공동 프로젝트 추진

October 06, 2025 | Jonathan L. Mayuga | BusinessMirror

BusinessMirror

A broader look at today's business

필리핀과 대한민국은 최근 ‘지속가능한 아세안(ASEAN)을 위한 청정대기 협력사업(CASA 프로젝트)’의 2년간 이행을 위한 청정대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환경부 차관보이자 환경관리국(EMB) 국장인 자클린 A. 카안칸(Jacqueline A. Caanacan)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영 교수(CASA 프로젝트 책임연구원)가 파사이스에서 서명했다.

CASA 프로젝트는 아세안-대한민국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의 지원을 받아 2023년 1월에 출범한 이니셔티브로, 아세안 회원국들이 선진 장비 제공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견고한 대기질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과학적 연구와 국제 협력을 결합함으로써, 환경관리국(EMB)과 서울대학교가 협력하는 CASA 프로젝트는 더 나은 데이터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스마트하고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라고 카안칸 국장은 성명에서 밝혔다.

카안칸 국장은 국경을 초월한 대기질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역사적인 협약은 필리핀과 한국이 더 깨끗한 공기, 더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환경적 도전에 더욱 강한 사회라는 공동의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하는 의미 있는 진전” 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이 파트너십은 양국 간 유대를 강화하고, 환경 보호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보여주며, 아세안 지역 전반의 지속가능성 증진 노력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 정부가 필리핀에 첨단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2대를 공식 기증하는 전달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한 대는 파사이스 대기질 모니터링 스테이션(AQMS)에, 다른 한 대는 케손시티에 설치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환경관리국(EMB), 서울대학교(SNU), 그리고 프로젝트 파트너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제공된 장비는 **PM2.5와 오존(O₃)**을 측정할 수 있으며, 전국 및 지역 대기질 모니터링 플랫폼과 연계된 실시간 데이터 수집 능력을 강화한다. 이러한 주요 오염물질 데이터는 근거 기반의 환경정책 수립과 목표 지향적 대응책 마련에 매우 중요하다. 업그레이드된 AQMS는 공중보건 보호와 지속가능한 대기질 관리 촉진에 대한 필리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의미를 지닌다.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의 정현정 참사관(Hyun Jung Jung)은 “아세안-대한민국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의 지원을 받는 CASA 프로젝트는 서울대학교와 아세안 전역의 협력 기관들이 공동으로 수행하며, 대기오염의 원인과 건강 영향을 규명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며,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필리핀과 아세안 전역에 걸쳐 대기질 모니터링 인프라를 구축하고 과학적 분석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CASA 프로젝트는 아세안의 대기오염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과 공중보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장비 기증 외에도, CASA 프로젝트는 환경관리국(EMB) 대기질 전문가들을 위한 기술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모니터링, 데이터 해석, 보고, 대응형 대기질 개선 조치의 수립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ont. page 3]

필리핀-한국, 2년간 청정대기 공동 프로젝트 추진

[Cont. from page 2]

카안칸 국장은 한국과의 이번 협력이 상호 지원과 공동 책임에 기반한 지역 환경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환경관리국(DENR-EMB)은 과학, 협력, 혁신을 통해 대기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모든 필리핀 국민이 더 깨끗하고 안전한 공기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ASA 프로젝트를 통해 필리핀 정부와 아세안 공동체는 더 깨끗한 공기와 더 건강한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10/06/phl-south-korea-forge-two-year-clean-air-project/>

9월 물가상승률 1.7%로 상승

October 07, 2025 | Niña Myka Pauline Arceo | The Manila Times

마닐라 — 주요 식품, 특히 채소류 가격 상승과 교통비 인상이 맞물리면서 9월 물가상승률이 높아졌다고 필리핀 통계청(PSA)이 화요일 보고했다.

The Manila Times®

소비자물가지수(CPI)는 9월에 1.7% 상승하여, 전월의 1.5%보다 높았으나 지난해 같은 달의 1.9%보다는 낮았다.

이는 올해 3월(1.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이번 수치는 《마닐라 타임스》가 실시한 경제학자 설문조사의 1.9% 중간 전망치보다는 낮았으며,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제시한 1.5~2.3% 범위 내에 해당한다.

PSA는 “2025년 9월 전체 인플레이션 상승세는 8월의 연간 -0.3%에서 9월 1.0% 증가로 전환된 교통비 지수의 상승이 주된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PSA는 “식료품 및 비알코올 음료 지수 역시 전월의 0.9%에서 1.0%로 상승하며 전체 물가상승률의 오름세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은 8월의 2.7%에서 9월 2.6%로 소폭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의 2.4%보다는 높았다.

현재까지 전체(헤드라인) 인플레이션(1.7%)과 근원 인플레이션(2.4%) 모두 중앙은행의 연간 목표 범위(2.0~4.0%) 내에 머무르고 있다.

Source: <https://www.manilatimes.net/2025/10/07/news/inflation-higher-in-sept-at-172195828>

외국 자금, 필리핀 채권 매입 확대

October 07, 2025 | Marco Luis Beech | The Philippine Star

마닐라 —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 필리핀 국채 매입을 계속 확대하며, 현재까지 7,000억 페소를 넘어섰다고 국채청(Bureau of the Treasury)이 밝혔다.

JP모건체이스(J.P. Morgan Chase & Co.)의 신흥국 국채지수(EMGBI)에 필리핀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외국인 투자자의 필리핀 국채 시장 참여율은 6% 수준에 이르고 있다.

샤론 알만자(Sharon Almanza) 국채청장은 금리와 환율 변동성이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면서 외국인 참여율을 7%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 수준이 이상적인 목표치라고 밝혔다.



Sharon Almanza

“물론 현재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변동성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특히 단기 자금(fast money) 및 헤지펀드의 매도세가 일부 관찰되었습니다.” 라고 알만자 국채청장은 기자들에게 말했다.

[Cont. page 4]

외국 자금, 필리핀 채권 매입 확대

[Cont. from page 3]

필리핀이 JP모건의 신흥국 국채지수 편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페소화 약세가 시장의 낙관론을 약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알만자 청장은 “이는 큰 우려 사항이 아니다” 라며, 최근의 페도세는 필리핀만의 현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는 지역적 흐름(regional trend)으로, 주변국들도 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알만자 청장은 “이번 현상은 부패 문제 때문이 아니라, 주로 미국의 금융 동향과 기타 대외 요인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국내적 요인에 기인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참여율은 해외 투자자 및 기관이 한 국가의 금융시장, 기업 활동 및 기타 경제 활동에 진입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알만자 청장은 필리핀 시장이 과거에는 외국인 참여율이 높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시장 변동성이 금리와 페소화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JP모건의 지수 시리즈에 포함될 경우, 페소화 표시 국채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입이 확대되어 유동성이 개선되고, 정부와 민간 부문 모두의 차입 비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랄프 렉토(Ralph Recto) 재무장관은 필리핀이 해당 지수에 편입될 경우 자본 유입이 증가하고, 정부 채권 확보가 용이해지며, 국내 자본시장이 더 넓은 투자자층에 홍보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알만자 청장은 페소화 표시 국채가 글로벌 채권지수에 편입될 경우 약 1,000억 페소의 추가 자금 유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8월 리테일 국채(RTB) 참여 증가 및 2차 시장 거래 확대에 따른 초기 성과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10/07/2477997/foreign-funds-step-purchase-philippine-bonds>

무역 부진과 ‘뒤처진’ 경쟁력으로 필리핀 수출 전망 어두워져

October 06., 2025 | Derco Rosal | Manila Bulletin



요약

- 지속되는 세계 교역 불확실성과 필리핀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 마르코스 행정부의 경제팀은 올해 필리핀의 상품 수출이 큰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속되는 세계 교역 불확실성과 필리핀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 마르코스 행정부의 경제팀은 올해 필리핀의 상품 수출이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9월 30일에 발표된 각료급 개발예산조정위원회(DBCC)의 연례 중간보고서(Midyear Report)는 “2025년 필리핀의 상품 수출은 세계 교역의 불확실성 심화와 경쟁력 저하로 인해 상당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고 밝혔다.

특히 DBCC는 무역 규제 강화가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와 사업 확장을 신중하게 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이는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성장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재고 조정, 비효율적인 제품 구성, 그리고 높은 운영비용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다” 고 덧붙였다.

한편, 필리핀 제조업 부문은 9월 들어 다시 위축세로 돌아섰다.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9로 떨어지며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는 지난 4년간 세 번째 하락세였다. 이러한 부진은 우기(雨期)로 인한 생산 차질, 높아진 관세, 그리고 수입 금지 조치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Cont. page 5]

무역 부진과 ‘뒤처진’ 경쟁력으로 필리핀 수출 전망 어두워져

[Cont. from page 4]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S&P Global Market Intelligence)에 따르면, 필리핀의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8월의 50.8에서 하락하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9월 기록한 53.7보다도 낮았다.

필리핀 중앙은행(BSP)에 따르면 상품 수출은 2025년에 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이전의 1% 감소 전망에서 상향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성장세는 2026년에 2%에서 1%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BSP는 인프라 투자, 무역 구조 변화, 수출입 시장 다변화가 대외 리스크 흡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물류 인프라 미비, 노동력 기술 격차, 높은 생산비용 등 오랜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레이에스 타칸동엔코(Reyes Tacandong & Co.)의 수석 고문인 조너선 라벨라스(Jonathan Ravelas)는 정부가 전력, 항만, 인허가 등 “구조적인 문제부터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리핀개발연구원(PIDS)의 수석 연구원 존 파울로 리베라(John Paolo Rivera) 역시 “항만, 냉동 유통망, 운송 회랑 등 무역 인프라와 물류를 개선해 비용을 낮추고 수출 준비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리베라는 또한 “통관 절차의 디지털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 무역 촉진 개혁은 시장을 다변화하고 전통적 교역 파트너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이코노미아 애드바이저리 앤 리서치(Oikonomia Advisory and Research Inc.)의 경제학자 레이니엘 매트 에레세(Reinielle Matt Erece)도 “필리핀 수출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해당 산업의 글로벌 시장 확장을 크게 도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에레세는 또한 “외국인 투자자와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경제 및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며, 특히 제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정부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패 방지 조치도 추진해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기타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벨라스는 전자제품 및 농업기술(Agri-Tech) 등 고부가가치 수출품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며, “중소기업(MSME)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베라는 “결국 필리핀은 무역, 산업, 혁신 전략을 일치시켜 수출 기반을 미래 지향적으로 강화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urce: <https://mb.com.ph/2025/10/06/philippine-export-outlook-dims-as-trade-woes-lagging-competitiveness-persist>

마르코스 “한 푼도 낭비되지 않을 것”

October 06., 2025 | Chloe Mari A. Hufana and Aubrey Rose A. Inosante | BusinessWorld



President Ferdinand R. Marcos, Jr. attends the Philippine Development Forum 2025 on Oct. 6. Also in photo are Department of Economy, Planning, and Development (DEPDev) Secretary Arsenio M. Balisacan and World Bank Country Manager Zafer Mustafaoglu. — PHILIPPINE STAR/NOEL B PABALATE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월요일 정부 지출을 강화하고 공공자금 사용의 비효율성을 줄이겠다고 다짐하며,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고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만달루용 시에서 열린 ‘필리핀 개발 포럼 2025(Philippine Development Forum 2025)’에서 개발 파트너들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정부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에서 낭비나 무행동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어와 필리핀어를 섞어 “실행 없는 평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자금의 낭비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푼의 돈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국가가 낭비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집행을 가속화하고, 해외 자금이 투입된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Cont. page 6]

마르코스 “한 푼도 낭비되지 않을 것”

[Cont. from page 5]

그는 또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투자조정위원회(Investment Coordination Committee, ICC) 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사업의 승인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특별권한(Special Authority)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홍수 통제 사업 등 정부 인프라 프로젝트에서의 부패 의혹에 대한 조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경제기획개발부(Department of Economy, Planning, and Development)의 아르세니오 M. 발리사칸(Arsenio M. Balisacan) 장관은 기자들에게 “이러한 ‘부패 문제’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공공지출의 거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 일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훨씬 개선된 환경이 조성된다면 그건 나쁜 결과가 아닙니다.”라고 설명했다.

발리사칸 장관은 홍수 통제 사업 관련 문제가 필리핀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조사 자체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용평가기관들도 어느 정도의 부패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부가 그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실제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이는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며 미래를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발리사칸 장관은 수십억 페소 규모의 홍수 통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제재를 받은 건설업체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좋은 파트너와 나쁜 파트너가 누구인지 국민이 아는 것은 책임성 메커니즘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프로젝트 지침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계약자에 대해 상호 제재(cross-debarment)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세계은행 필리핀·말레이시아·브루나이 담당 국장 자페르 무스타파오글루(Zafer Mustafaoglu)**는 정부의 반부패 조치가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은행은 필리핀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도적 구조를 개선해 부패를 줄이는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무스타파오글루 국장은 개막 연설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활용해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적 개선을 통해 더 나은 성과와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발 파트너들은 향후 3년간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총 5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를 통해 필리핀 국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무부 차관 조벤 Z. 발보사(Joven Z. Balbosa)는 정부가 개발 파트너들의 프로젝트 주기와 국제적 표준 절차로부터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 기획, 실행, 수행, 그리고 모니터링 및 평가 단계까지 — 각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과 설계에 반영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품질과 일정 준수를 점검하는 간헐적 검토(missions or intermittent reviews)도 이루어집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예산부 차관보 로메오 매튜 T. 발란킷(Romeo Matthew T. Balanquit)은 홍수 통제 사업 비리 조사로 인한 정부 지출 둔화(underspending) 우려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지출 부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계정(accounts payable)이 존재하며, 이는 전년도에 이미 완료된 프로젝트들에 대한 대금 지급을 의미합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데라살-세인트 베니엘드 대학교(De La Salle-College of St. Benilde) 외교 및 거버넌스 대학의 게리 D. 아도르 디오니시오(Gary D. Ador Dionisio) 학장은, 정부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정 투명성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감시기구를 보강하며, 종합적인 반부패 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적 개혁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개혁이 공적 자금의 오용을 방지할 뿐 아니라, 공적개발원조(ODA)가 인프라, 사회 서비스, 그리고 포용적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Cont. page 7]

마르코스 “한 푼도 낭비되지 않을 것”

[Cont. from page 6]

그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조달 및 예산 절차를 완전한 디지털화를 통해 현대화하고, 성과 기반 지출(performance-based spending)을 강화하며, 독립적인 감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재정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감사위원회(Commission on Audit)와 옴부즈만 사무국(Office of the Ombudsman)과 같은 감시 기관들이 더 큰 기소 권한을 부여 받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청렴성을 가진 인물들이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교(Ateneo de Manila University)의 정치학 강사 한슬리 A. 홀리아노(Hansley A. Juliano)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자신을 부패 스캔들로부터 분리시키고 공정성과 개혁의 이미지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시도는 페르디난드 마틴 G. 로물레스(Ferdinand Martin G. Romualdez) 전 하원의장과 마리아 이멜다 호세와 레메디오스 ‘아이미’ R. 마르코스(Ma. Imelda Josefa Remedios ‘Imee’ R. Marcos) 상원의원 등 대통령의 가족이 연루된 여러 논란으로 인해 복잡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홀리아노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주된 목표는 정치적 생존과 임기 완수이며, 이를 통해 ‘마르코스 가문은 부패 없이 역경을 견뎌냈다’는 서사를 굳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필리핀의 제17대 대통령인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7월 **국정연설(State of the Nation Address, SONA)**에서 전국적으로 집중호우와 홍수가 발생한 이후, 강력한 반부패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부정한 공공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하고, 이 같은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독립 인프라 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 for Infrastructure)**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10/07/703309/marcos-vows-no-money-will-go-to-was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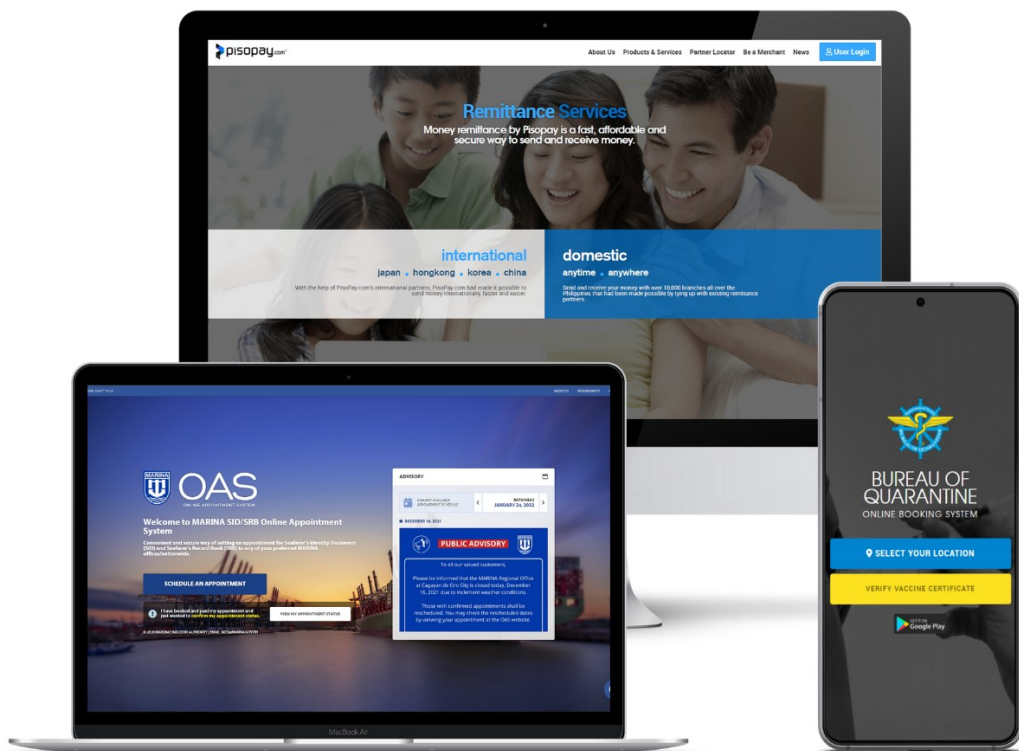
[UPCOMING EVENT]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Elevating the definition of Fintech Standards



CONTACT US

- (02) 8242 8153
- info@pisopay.com.ph
- <https://www.pisopay.com.ph>
- Pisopay Bldg, 47D Polaris, Makati, 1209 Metro Manila

